



상황에 맞으면 거짓말도 선행



거짓말에도 선의의 거짓말이 있고 악의의 거짓말이 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거짓말은 나쁜 것이니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교육 받아 왔다. 그러나 거짓말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비밀을 지켜주기 위한 거짓말, 상대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 얼마든지 있다.

우선 가장 흔한 거짓말이 밋지고 판다는 장사꾼의 말이다. 예를 들어 120,000원 하는 물건이 있다고 하자. 사려는 사람이 주인장에게 묻는다.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주인장은 구매자의 얼굴을 살핀다. 정말 사고 싶은지, 또는 약삭빠른 사람인지, 어리숙한 사람인지 얼굴을 보면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리숙한 사람에게 150,000~200,000원을 부른다. 어리숙한 남자들은 물건이 마음에 들면 부르는 대로 물건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산다.

그렇지만 흥정에 능한 사람은 물건이 사고 싶을 때는 반대로 물건 값을 깎는다. "100,000원에 팔면 살게요." 라고 운을 띄운다. 그러면 장사꾼은 "예! 100,000원에 가져오는데 120,000원에 팔아야 20,000원이라도 남지요. 그렇게는 안 돼요!" 한다. 그러면 구매자는 "그러면 말고요." 하면서 자리를 떠나려 한다. 그러면 장사꾼은 얼른 말을 건넨다. "그러지 말고 10,000원 더 주고 110,000원에 가져가쇼!" 대부분은 여기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그러나 약은 사람은 아직 아니다. 한 번 돌아보고는 멈춰 섰다가는 또 그냥 돌아선다. 그러면 장사꾼은 "에이 오늘 남은 것 없네. 그냥 100,000원 주고 가져가시오." 한다. 그러나 그래도 장사는 남는다. 원래가 반값 이하에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 이상 남은 것이 장사다. 꼭 남을 속이기 위한 악의의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살아가기 위한 거짓말이다.

또 다른 예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쫓기는 독립군이 집으로 숨어들었다고 하자. 일본 순사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숨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한 목숨이 죽게 된다. 더구나 그것이 가족이라면 더욱 더 절박할 것이다. 그 때는 시키지 않아도 모른다고 대답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다. 아침에 주변들이 운동장에서 벌을 서는 장면을 교실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 선생님이 우리를 쳐다보며 "웃은 놈 누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 교실로 올라와서 "금방 웃은 놈 누구야? 앞으로 나와!" 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겁에 질려서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모두가 떠들며 구경하고 있었으니 누가 웃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모두가 책상에 올라가 꿰어앉아서 의자를 들고 벌을 서게 되었다.

주변 선생님이 가시면서 "웃은 놈, 당장 교무실로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벌살 줄 알아!" 하시며 엄포를 놓고 가셨다. 설상가상으로 담임선생님이 조례를 하러 들어오셨다가 모두 벌을 서고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그냥 나가 버리셨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웃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러다가는 정말 하루 종일 벌을 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에이, 나 하나 혼나고 말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교무실로 주변 선생님을 찾아가었다. "제가 웃었습니다." 고 말했다. "이 놈! 아까는 왜 안 나왔어!" 하며 혼을 낼 줄 알았던 주변 선생님의 반응이 의외다. "왔으면 됐어! 가서 그만둘 하라고 그래! 그 놈 의리 있네!" 하는 것이다. 반 아이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니가 웃은 거 아니잖아!"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 거짓말로 인하여 주변 선생님께도 인정받고 교우들에게도 인정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이 담임선생님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방과 후에 우리 반은 또 책상 위에 꿰어앉아서 담임선생님께 빗자루 똥똥이로 손바닥 다섯 대씩 맞았다. 그것도 엄청 세계!*

수녀의 요가 교실

내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어디 그뿐이랴. 살아있는 만물은 다 귀하고 소중하다.

사람들은 불로장생 하는 비결로 충분한 휴식, 몸에 좋은 음식, 긍정적인 사고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말한다. 또한 여러 종교에서는 신약적 가치로써 불로장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불로장생 하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구세주 하나님과 그 비결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 승리제단에 있다.

진짜 불로초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마음으로도 죄짓지 않는 생활을 이 지구 땅위에서 실천하고 있으니 불로장생을 꿈꾸는 사람들은 한번 알아보시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발자세로 견상자세

효능: 배, 등, 허리 튼튼하게, 요통에 효과적, 자율 신경계 활동 정상화, 신장 기능 활발, 독소배출 촉진, 부기 빠지는 효과, 견갑골, 척추 기립근, 견관절을 이완시켜 목뒤와 어깨 쪽에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동작①: 무릎 꿇고 앉은 자세에서 손바닥을 무릎 앞쪽 바닥에 위치시키고 네발자세로 유지한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해서 한다. 10초 유지.

동작②: 네발자세에서 손을 한 걸음 한걸음 내밀어 숨을 마시면서 배꼽, 가슴, 어깨 순으로 바닥에 볼도록 견갑골을 늘려준다. 10초 유지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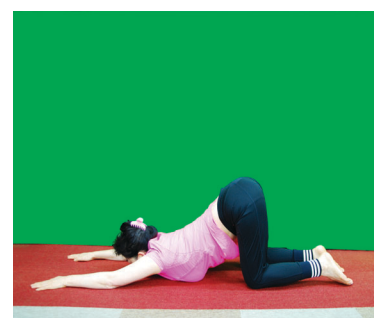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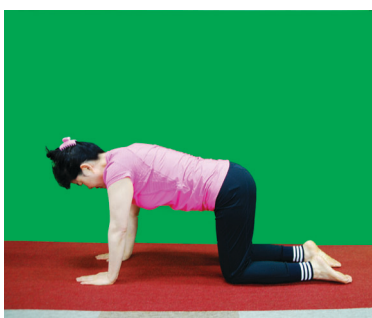
주의: 엉덩이와 다리가 90도 되게 한다.

할 자세(위와 대장을 튼튼하게)

효능: 어깨, 발목, 골반강화, 가슴발달, 내장기능 강화, 위 경락을 자극해서 소화기능을 원활히 한다. 척추강화, 척추 노화에방, 소장, 간, 방광을 튼튼하게 한다. 어깨 불균형 해소.

동작③, ④: 배를 바닥에 대고 누운다. 한 다리씩 접어서 같은 손으로 발목 안쪽으로 잡는다. 잡은 양발을 들어 올리며 상체도 들어 올린다. 10초 유지 5회.

주의: 등 뒤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무릎사이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한다. 골반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도덕경 해설

柔弱勝強

유약승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느니라

도덕경36장 해설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와 도를 닦으면, 이 세상은 자연 현상계와 인간의 생활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식물이 씨가 나서 자라다가 한동안 꽃을 피우고 나서 다시 시들 듯, 동물과 인간도 태어나서 자라고 한동안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쇠하여 죽게 마련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이 세상은 생성, 쇠퇴, 소멸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사상의 조류(음양의 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한다. 이 음양의 도가 존재하는 모든 물질계와 인간계와 세계에서는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거듭하는 인과(因果)를 초래한다. 이러한 부침(浮沈)이 엄연히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인간사 모든 일을 대처해 나가면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도 할 것이고, 또한 위태롭지 않게 될 것이다. 만사가 흥하는 것이 정점에 달할 때 망할 것을 내다보고, 성할 때 쇠함이 울 것을 내다보고 대처해 나간다면 그 사람은 지혜를 가졌다고 볼 수 있고, 작은 빛 가운데 거하는 빛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도한 세상에서 살면서 밝음, 지혜가 없다면 사람은 항상 곤란에 빠지게 되고 괴롭고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 집을 지고 사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음양의 도가 존재하는 세계는 흥망성쇠가 반드시 있다

세상의 재물이거나, 인재를 모음에 있어서도 꼭 쥐고 있다고 해서 모아지는 것이 아니다. 먼저 모으려면, 재물을 배풀든지, 덕을 배풀든지 하여야 할 것이다. 將欲弱之 必姑強之(장욕약지 필고강지): 대저 약해지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잠시 동안 강성해질 것이요

완전한 도를 지키며 사는 세계는 삶의 굴곡이 없겠으나, 도가 없는 세상은 굽이굽이 굴곡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국력이 약해진다든지 재물이 빈약해진다든지 할 때도 한창 잘 나가고 강성해집이 극에 달할 때이라는 것이다.

將欲去之 必姑興之(장욕거지 필고여지): 대저 떠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잠시 동안 펼칠 것이요

잠시 동안 함께 할 것이요

인생의 삶도 잠시 함께하고 떠나고, 돈과 재물도 상대를 넘겨 주지 못하고 떠난다고 한다. 도가 없는 유한한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將欲奪之 必姑予之(장욕탈지 필고여지): 대저 빼앗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잠시 동안 인정을 받을 것이다

무자정 빼앗고자 한다고 해서 뺏을 수 있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상대에게 억지로 빼앗으려면 그만한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순순히 빼앗고자 한다면 일단 먼저 상대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연스럽게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是謂微明(시위미명) : 이를 일컬어 미묘한 밝음(지혜)이라 한다.

이것은 온전한 지혜는 아니라, 작은 지혜로서 삶의 운신의 폭이 두루 통할 수 있으니 앞길에 어둠진 않고 희미하게나마 밝게 비추는 것이라는 것이다.

柔弱勝強(유약승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느니라

세상의 이치로 보면,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상대적인 하나 삶의 이면과 배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강한 태풍이 불면 강한 나무는 뿌리째 뽑혀 몸을 보존할 수 없으나, 풀은 작은 바람에도 흐느적거리나, 엄청나게 강한 태풍에도 유유히 살랑거리며 살아 있다는 것이다.

魚不脫於淵(어불탈어연):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지 못한다

개개인마다 능력과 지략의 한계가 있다. 각자의 그릇에 맞게 이러한 작은 지혜와 작은 밝음이 담겨서 쓰임 바 될 뿐이다.

國利器 不可以示人(국이기 불가이시인): 국가를 이롭게 하는 이러한 수단(전략)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야 하느니라

사람의 일이나 국가적인 전략이나 마찬가지다. 옛말에 호사다마(好事多魔)란 말도 있듯이, 뭔가 일을 꾸미고 계획하는 데는 반드시 마가 따르는 법이니 반드시 은밀한 가운데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김주호 기자

허만욱 승사 칼럼

피의 썩음과 음식

1980년 10월 15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랑을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출현하셨다. 그분은 "인간의 조상은 하나님이다" "인간의 사랑의 원인은 피가 썩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 두 종류의 신밖에 없다" "하나님의 신은 양심으로서 인간의 몸속에 갇혀 있고, 마귀 신은 주체영으로서 인간을 다스리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예: 성경상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의 부활을 논한 것이다)와 같은 엄청난 말씀을 논했으나 이해할 수 없어 어리둥절했다. 육천년간 가려져 있었던 내 용이므로 그러기도 하거나 특히 인간의 사랑의 원인이 "피의 썩음"이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웠다. 또한 피를 썩게 하는 원수가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므로 거침 없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실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최근에 와서 제단에서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이라는 승리제단 교리를 공식적인 인사말씀으로 선정하고 강조하고 있다. 비록 짧고 간단하지만 이 인사말이야말로 마귀를 죽이는 극비의 전술용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인 마귀병 환자들을 아무런 상처 없이 에덴동산으로 인도하는 고차원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사말을 통해서까지 마귀 소탕작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몸속에 다른 종류의 불청객이 서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당신의 속은 편안하십니까?"라는 월간지 <뉴턴>에 실린 기사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대장의 환경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100조개의 장내세균이다. 그런데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는 착한 균과 나쁜 작용을 하는 악한 균의 세력에 따라 장 내부의 건강상태가 변한다. 대변과 변비, 설사 등의 배변장애 그리고 대장의 건강을 좌우하는 다종다양한 장내세균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악한 균은 유해물질들을 만들어 대변을 구리게 한다. 즉 피를 썩히게 한 다. 그리고 착한 균은 장 내부를 산정도로 유도하여 변비도 방지하는 등 피를 맑혀 준다.

우리들은 피를 썩지 않게 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 피는 음식물로도 썩으므로 하루 세 끼 식사를 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착한 균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6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부산제단 : (051)863-6307	마산제단 : (055)241-1161	사천제단 : (055)833-7866	광주제단 : (062)524-4555	神戸祭壇 : (078)862-9522	神奈川祭壇 : (045)451-3150	London : (0208)894-1075
수원제단 : (031)236-8465	영도제단 : (010)6692-7582	진주제단 : (055)745-9228	포항제단 : (054)292-5455	대전제단 : (042)522-1560	下関祭壇 : (0832)32-1988	Philadelphia : (215)722-2902	
안성제단 : (031) 673-4635	김해제단 : (055)327-2072	울산제단 : (052)291-1849	순천제단 : (061)744-8007	청주제단 : (043)233-6146	久米祭壇 : (0942)21-4669		
평택제단 : (031)652-6438	충주제단 : 010-9980-5805	진해제단 : (055)544-7464	순천제단 : (063)533-7125	금마제단 : (063)853-6673	岐阜祭壇 : (0584)32-1350		
이족제단 : (031)672-6786	대구제단 : (053)474-7900	영천제단 : (054)333-7121	군산제단 : (063)461-3491	橫濱祭壇 : (045)261-6338	大阪祭壇 : (06)6451-3914		

힘에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